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 주제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이라는 주제로 9월25일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렸다.

올해는 이번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추석 연휴에 포함돼 있어 행사가 앞당겨 열리게 됐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그해의 행사 주제를 고려, 기념식 장소를 선정해왔다. 69주년인 2017년에는 해군2함대사령부, 70주년인 2018년에는 전쟁기념관, 71주년인 지

난해에는 대구 공군기지에서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특수전을 상징하는 특전사를 개최 장소로 선정, 특전사를 비롯한 국군 특수전 부대의 강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평화를 만들어갈 미래 국군의 비전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각 군 기수단과 특수전 정예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례, 훈·포장 수여, 기념사, 각 군 특수전 영상, 공중전력 기동, 특전요원 헬기레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전·식후 행사가 생략됐다. 참가병력과 장비도 최소화했다.

특히 초청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최소화했다. 최근 3년 동안 행사에 평균 2800여 명이 참가한 것과는 비교되는 숫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하고, "우

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 10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

1920년 7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비행술을 배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미국 윌로우 한인 비행학교에서다.

100년 전 먼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렸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청년들의 결연한 의지와 열정이 빛났던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교를 양성한 곳으로, 오늘날 공군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공군은 7월14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공독립운동정신과 항공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한인 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제막식은 역대 공군참모총장, 6·25전쟁 출격조종사, 노백린 장군·박희성 참위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조형물 소개, 제막 세리머니, 공군참모총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희성 참위의 증손녀가 참석해 애국가를 선창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조형물은 1920년 한인 비행학교 개교 당시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스탠더드(Standard) J-1 훈련기 1대와 학생비행사 10명의 모습을 재현한 것. 12면으로 구성된 기단부에는 건립 취지문, 비행학교 소개 및 관련 인물(노백린 장군, 김종립·곽임대 애국지사, 비행학교 교관·학생 등)에 대한 설명이 판각돼 있다. 조형물 제작은 HK조형연구소와 한남대학교 김성용 교수가 맡았다.

원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임시정부의 항공부대이자 항공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던 한인 비행학교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라며 "공군은 모든 장병이 자랑스러운 항공독립운동에 대해 분명한 역사인식을 갖는 한편 공군의 빛나는 유산으로 항공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회장 제주지부 회장단과 환담

본회 김성일 회장은 9월 29일 제주도 엘리시안 호텔 로비에서 제주지부 회장단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

사적인 일로 제주도 방문길에 오른 김 회장은 잠시 시간을 내어 제주지부 김세환 고문, 장명선 지부장과 좌중언 차기 지부장 내정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장 지부장은 제주지부 일반현황 및 활동사항들을 간략히 보고하고 주요 관심 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김 회장은 “제주지부가 회장단을 중심으로 회원간 친목도모 및 지부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골프동호회 총무단 친선운동 및 회의

골프동호회(회장 이강욱)는 9월10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각 특기별, 신분별로 구성된 골프동호회 단체 총무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단 친선운동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준수 적용에 따라 전체 모임을 갖지 않고 전우회 조직국장과 각 단체 대표가 1대1로 만나 회의자료를 배부하고 금년도 친선골프대회

(10월 8일/수원체력단련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행사를 마쳤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 정부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9.14 - 9.27) 및 추석연휴기간을 고려한 특별방역기간(9.28 - 10.11)이 설정됨에 따라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본회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금년도 골프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9월 16일 최종 결정했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종윤)는 지부 회장단 6명이 7월31일 김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51항공통제비행전대를 방문하여 부대현황 청취, 환담 및 오찬을 나누고 위문품으로 생수 6000병을 전

달했다. 김 지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지부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홍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장 내방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김진홍 회장의 1명이 8월 5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김진홍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일반현황과 주요활동사항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을 치하하며, 항공고총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 회장단 친선운동 및 간담회



본회 김성일 회장은 취임후 지난 6월10일 공군호텔에서 회장단으로 선임된 부회장들과 상견례를 갖은 후 1차로 7월3일 6명의 부회장 및 2차로 8월 26일 6명의 부회장들과 함께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오찬을 겸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우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금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김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임된 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간담회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문경지회



문경지회(지회장 조성수) 회원 6명은 8월 20일 문경시가 후원하고 문경시 유곡동 재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6.25 전쟁영웅고 박동진 중사 기념비 앞에서 거행된 추모제에 참석했다.

박 중사는 1930년 유곡동에서 태어나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인천상륙

작전을 위해 지상과제였던 덕적도를 점령하고, 8월 20일 영흥도 탈환작전에서 작전수행중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장렬하게 전사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1년 2월 5일 1계급 특진과 총무무공훈장을 추서받고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되었다.//

제 237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는 9월2일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237기 공군 부사관후보생 임관시에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상을 전수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회장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사에 위임수여하였는데 김경식 하사가 보라매 상장과 부상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을 초청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행사에 가족과 지인들은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중계를 시청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행사는 임관 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사령관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관한 316명의 신입 부사관들은 지난 6월 8일 입영했다. 이들은 기상 관측 역사상 최장기 장



마에 이은 폭염,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예 부사관이 되기 위해 12주 동안 기본군사훈련을 받았다. 또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군사지식을 함양했으며, 자치근무 중심의 병영 생활로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배양했다.//

화천지회

화천지회 (지회장 김철준)는 10월 5일 시내 식당에서 지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창립 2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역대 회장들에 대한 공로상과 모범 지회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김 지회장은 “지회 창립 23주년을 전 지회원과 함께 자축하자”며, “그간 역대 지회장님과 지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화천지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다같이 힘을 모아 회원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성용 제38대 공군참모총장 취임

공군은 9월 23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38대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대장 취임식과 37대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대장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취임식 참석 인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군 주요 지휘관과 공군본부 부·실·단장 등 100명 미만으로 최소화했다.



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상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완벽한 영공방위를 통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경쟁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미래 전장에 운용 가능한 항공우주력 건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 운영체계 구축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서로 소통하는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등의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이·취임식은 인사명령 낭독, 공군기(지휘권) 이양, 열병, 장관 훈시, 이임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용(공사 34기)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등 작전·기획·사업 등 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

공군 공중급유기, 교민 귀국 지원에 최초로 투입

최근 이라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교민 290여 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용기를 급파했다.

국방부는 7월23일 “공군 공중급유기(KC-330) 2대가 이날 오전 7시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태우고 출발했다”며 “군용기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귀국을 희망한 한국인 290여 명을 태운 뒤 24일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공군 장병들과 외교부 신속대응팀 요원들이 3일 공군 김해기지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이라크 파견 근로자 등 우리 교민 귀국 지원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공중급유기 지원은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이라크에서 일일 2만여 명이 확진되



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우리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민간항공기는 최소 2주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돼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중급유기를 파견한 것. 지난해 말 군에 공중급유기 4대가 도입된 이래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투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장병들이 23일 공군 김해기지에서 이라크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공군공중급유기(KC-330)에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자를 적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투입되는 공중급유기를 통해 이라크 정부에 방역마스크 5만 장도 함께 전달했다.//

다. 그는 1950년 12월 미 공군의 러셀 블레이크(1910년 9월~2007년 5월) 군복과 함께 미 수송기 15대를 동원해 1000여 명의 전장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후송하고 현지에 보육원을 설립하는 데 이바지했다. 전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며, 20여 년간 전장고아 후원금 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공군은 6·25의 승리와 전장고아의 인도적 지원에 헌신을 다한 딘 헤스 대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거행해 올해 5회를 맞았다. 지난 2017년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딘 헤스 대령을 기리는 공적기념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2020 항공지휘관회의' 개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9월28일 미 7공군사령부와 함께 '2020 항공지휘관회의(ABC·Air Boss Conference)'를 개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연합 공군작전의 발전을 도모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공작사와 예하 부대, 미7공군 등 한반도 내 주요 한미 항공지휘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예하 부대 지휘관·참모들은 화상회의(VTC)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 한미 지휘관

들은 현재의 안보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항공작전 수행능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대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다짐했다.

한편, 공작사는 한미 항공지휘관들이 모여 연합공군작전의 전략과 개념을 공유하고, 작전 수행능력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항공지휘관 회의'를 지난 199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공사, '산학협력단' 창설

공군사관학교(공사)는 8월4일 교내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산학협력단 창설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산학협력단은 전문 연구관리 법인으로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만 수행해 왔으며 국방부, 각 군에서 제기되는 연구 수행은 제한됐었다. 공사는 이번 산학협력단 창설을 통해 군 정책연구, 무기체계 평가 등과 같은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군사과학 및 항공우주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 군사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선진 연구결과를 생도 교육으로 환류시켜 사관학교 교육의 전문성을 한걸 심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1전비, 3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이 9월14일 비행단 3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며 축하행사를 열었다. 3만 시간 기록은 이날 김대규 소령과 홍치선 대위가 탑승한 F-15K 항공기가 비행 임무를 마치고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하면서 수립됐다. 부대의 이번 기록은 지난 2018년 4월 6일부터 2년 5개월에 걸쳐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전 요원들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선제적인 비행 안전관리를 실천해왔기에 달성한 성과다. 특히 이번 비행기록은 2018년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RedFlag-Alaska) 훈련 참가, 2년 연속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탐견 배출, 2019년 전투준비태세 공중작전 우수부대 선정 등 실천적인 훈련과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빈틈없는 비행 안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25 항공전 영웅'故 딘 헤스 미 공군 대령 5주기 추모식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군은 7월21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6·25 초기 대한민국 공군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고(故) 딘 헤스(1917년 12월 6일~2015년 3월 3일) 미 공군 대령의 5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기념비 소개, 공적보고, 헌화 및 참배, 딘 헤스 대령에 대한 묵념 및 경례 순으로 진행됐다.

딘 헤스 대령은 6·25 당시 미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의 F-51 전투기 훈련과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창설한 바우트 원(BOUT-1) 부대를 이끌며 대한민국 공군을 최단기간 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 1년간 무려 250여 회 출격하며 적 지상군 격퇴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딘 헤스 대령이 조종하던 F-51 전투기에 새긴 '信念의 鳥人(신념의 조인·By Faith I FLY)'은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상징하는 문



구로 자리매김했다. 딘 헤스 대령의 업적은 전투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았

다. 그는 1950년 12월 미 공군의 러셀 블레이크(1910년 9월~2007년 5월) 군복과 함께 미 수송기 15대를 동원해 1000여 명의 전장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후송하고 현지에 보육원을 설립하는 데 이바지했다. 전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며, 20여 년간 전장고아 후원금 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공군은 6·25의 승리와 전장고아의 인도적 지원에 헌신을 다한 딘 헤스 대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식을 거행해 올해 5회를 맞았다. 지난 2017년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딘 헤스 대령을 기리는 공적기념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10전비 201대대, 5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0전투비행단(10전비) 201전투비행대대가 14년 10개월에 걸쳐 '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비행기록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14년 10개월에 걸쳐 수립됐으며, 5월 27일 이진길(중령) 201전투비행대대장과 한지운 대위가 탑승한 KF-5E 전투기가 비행 훈련을 마치고 안전하게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달성됐다. 부대는 이를 자축하기 위해 8월7일 비행단장 주관으로 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비행 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시상식에서 부대는 공군참모총장 대대표장을 수상하는 영



예를 안았고, 장동민 소령, 윤필상 대위, 이창선 준위가 참모총장 개인표창을

수상했고, 총 12명이 작전사령관·공중전투사령관·10전투비행단장 표창 등 개인표창을 받았다. 한편, 부대는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보라매 공중사격 대회 종합 최우수 대대로 선정돼 대통령 상장을 받는 등 탁월한 전투기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전비,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

KF-16 전투기를 운용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공군의 핵심 전투비행단 공군20전투비행단이 무사고 비행 기록 18만 시간의 금자탑을 쌓았다. 부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7일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비행단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식은 기록을 달성하기까지 임무 수행에 전념한 장병과 군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비행 기록은 지난 5월 1일 120전투비행대대 이예람 소령이 탑승한 KF-16 전투기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



서 달성됐다. 2009년 4월 1일부터 약 11년간에 걸쳐 이룬 기록으로, 거리로 환산하면 대략

9700만km다. 이는 지구 둘레를 약 2400바퀴 돈 거리와 맞먹는다. 이날 부대는 국방부장관 부대표장 수상과 더불어 비행안전을 위해 헌신한 14명의 장병들이 국방부장관, 작전사령관, 공중전투사령관, 단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